

##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고 있는가?

(Contradictions : A Righteous Lie? Why was Rahab praised for lying in James 2:25 when lying is forbidden in the Ten Commandments?)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 여호수아 2:1-16절에서 나온다. 라합(Rahab)은 정탐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들을 숨겨주며 추적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추적자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녀는 정탐꾼들이 있는 곳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준 후에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있었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수 2:1)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수 2:3-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찌니라” (수 2:16)

야고보서 2장에서 라합의 행동은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약 2:25)

첫째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구절 어디에서도 정탐꾼들에 관해 거짓말을 한 라합의 행동이 칭찬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자를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한 행동으로 칭찬받고 있었다. 또한 히브리서 11:31절에서도,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으로 칭찬받고 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 11:31).

다시 한번 그 구절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다. 라합은 그녀의 거짓말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즉, 1)정탐꾼들을 유숙하게 해주었으며 2)안전한 방향으로 정탐꾼들을 보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야고보는 그녀를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고 간주한 것이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다른 행동들이 의로웠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은 9번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어떤 상황 하에서 하든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코 묵인되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거짓말(righteous lie)’ 같은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당시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 라합의 인생은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한때 가나안의 사람으로 기생이었던 여자가 변화되어 시온의 딸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방인이었고 매춘부였던 라합이 보아스(룻의 남편)를 낳고, 다윗왕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되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겸손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다 :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 2:11)